

원희룡 장관, “국가의 건축정책은 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일”

- 14일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참석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4일(금) 제7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이하 “국건위”)* 위촉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신임 권영걸 위원장을 비롯한 국건위 민간위원 17명의 위촉을 축하하고, 국가건축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* 「건축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건축정책 자문위원회로, 11개 부처의 장관과 건축·도시·디자인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됨

- 이날 행사는 제7기 국건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위원회의 건축정책 의제(어젠다)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, 원 장관은 축사와 민간위원 위촉장 전수를 마친 후 제7기 국건위 운영계획을 청취하였다.

- 원 장관은 축사에서 “건축은 문화의 표현이기에, 국가의 건축정책은 우리 문화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표출하는 중대한 일”이라고 강조하면서, “2027년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며,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건축문화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건축·도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”고 말하였다.

- 또한, “건축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, 문화·관광자원으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, 스마트도시 수출 모델 개발 및 기후·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도시정책 전략 모색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, “우리 국민의 역사성을 표현하고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‘국가적인 상징공간 조성’에 국건위의 역할을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 “관련 부처 간 협업을 잘 이끌어 국가적 건축정책 어젠다를 개발해 줄 것”을 요청하며, “국건위가 추진하는 정책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2023. 4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